



인협, 직지 및 인쇄문화 홍보전

파주 - 서울 - 영국서
잇따라 개최

파주어린이 책잔치에 직지홍보관 설치

대한인쇄문화협회(회장 흥우동)와 청주고인쇄박물관(관장 안병무)은 금속활자로 인쇄된 현존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 직지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파주출판도시어린이책잔치 2010’ 행사에 직지홍보관을 운영했다. 18m²(6m × 3m) 크기의 전시부스에 직지홍보관을 마련해 직지 영인본(하권), 복원본(상권)과 직지 금속활자 제작과정, 직지 홍보 패널 등을 전시해 직지의 인류문화사적 가치와 금속활자가 인류발달에 끼친 영향, 과학발달사에서의 역할 등을 중점 홍보했다. 또한 자원봉사자가 현지 상주하며 관람안내와 직지 금속활자판 인쇄 체험을 실시하는 한편 관람자들이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람자들에게 직지홍보 책자를 통한 홍보도 병행했다. 이번 행사는 5월 5일부터 9일까지 파주 출판도시에서 진행되었다.

주최측의 관계자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현존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을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해 주고, 또한 우리나라의 인쇄의 역사가 얼마나 깊고 넓은지 깨닫게 해주기 위해 이번 행사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국제도서전 행사장 고인쇄문화관 설치

금속활자로 인쇄된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 직지의 창조적 가치를 알리기 위해 '2010 서울국제도서전'에서도 고인쇄문화관을 12일부터 16일까지 설치 운영했다.

서울 코엑스에서 54m²(9m × 6m) 크기의 전시 부스에 고인쇄문화관을 마련해 직지 영인본(하권), 복원본(상권)과 직지 금속활자 제작 과정 디오라마 직지 홍보 패널 등을 전시해 직지의 인류문화사적 가치와 금속활자가 인류 발달에 끼친 영향, 과학 발달사에서의 역할 등에 대해 중점 홍보했다. 또 자원봉사자가 현지에 상주하며 관람 안내와 직지 금속활자 인쇄체험을 실시해 관람자들이 흥미를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홍보 책자를 통한 홍보도 병행했다.

이번 '2010 서울국제도서전'의 고인쇄문화관에는 많은 관람객이 다녀가고, 하루 종일 만원을 이루는 등 직지에 대한 참관객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특히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개막식 행사에서 고인쇄문화관을 방문하고 직접 고인쇄 시연을 하는 등 주요 인사들과 각종 언론매체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앞으로 대한인쇄문화협회와 청주고인쇄박물관은 국제적인 행사에 고인쇄문화관을 설치하고 우리 민족의 자랑이며 인류문명을 발달 시킨 위대한 금속활자의 결정체인 '직지'의 창조적 가치를 국내외적으로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IPEX(6홀521)에 한국인쇄관 조성

대한인쇄문화협회는 지난 5월 18일부터 25일까지 영국 버밍엄에서 개최된 세계 최대의 인쇄기자재 전시회인 'IPEX2010'에 약 30평 방미터 규모의 한국인쇄관을 조성하여 인쇄물 및 인쇄기자재 수출 활동을 전개했다.

인협은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아 한국이엔엑스와 공동으로 동 인쇄관을 조성했으며, 친환경 인쇄문화와 현대의 인쇄물, 인쇄기자재 카탈로그 등을 전시하는 한편, 직지 및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의 시연행사도 가졌다. 이와 함께 오는 9월 캠텍스에서 개최되는 KIPES(국제 인쇄산업전) 홍보도 병행했다.

이번 전시회에 우리나라에서는 은성정밀인쇄(주), 청아문화사, (주) 아시아프린팅, (주)도일기계공업, 광창기계, 명신물산, 지성기계공업, ACE기계(주), 경일기공사, 동방인쇄공사, 두산동아, 신우프레스(주), (주)광인사, (주)국제기계, (주)동양잉크, 연미술, 크리커뮤니케이션, 국제전산품기계, (주)미래엔컬처그룹, (주)고려디지웍스, 경구개발공작소, 대호기계 등 22개 업체가 카탈로그 및 인쇄물을 인협을 통해 위탁 전시했다.

인협의 관계자는 "IPEX 전시장에 우리나라 홍보관을 조성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를 통해 인쇄물 수출을 촉진하고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인쇄기자재의 수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박성권 기자 vovsys@print.or.kr

